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간의 관계성과 분포

Relationship and Distribution between Self-Esteem and Differentiation of Self of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

이미영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Mi-Young Lee(my10526jig@naver.com)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중심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 분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15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에는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군집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자아분화는 정신내적미분화, 타인지향분화, 자아지향분화로 구성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소외적, 성취적, 관계적, 위축적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를 고려한 아동분포를 살펴보면 37.6%(군집 2)의 아동은 성취적, 관계적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아지향분화 수준도 높았으나, 43.0%(군집 1)의 아동은 소외적, 위축적 성향과 정신내적미분화와 타인지향분화 수준이 높았고, 19.4%(군집 3)의 아동은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 수준 모두 매우 낮았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다수가 가족해체나 부모역할 부재로 상실감을 경험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집 1과 3의 아동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뿐 아니라 부모교육 및 가족연계 프로그램을 병행 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 지역아동센터 | 아동 | 자아존중감 | 자아분화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ifferentiation of self, and to identify the degree of self-esteem and differentiation of self. Data were collected from 151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ing community child center.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differentiation of self was classified into differentiation of internal mind, other's and self oriented. Self-esteem was classified into isolation, achievement, relation, and daunted. Second,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re was obvious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the differentiation of self. Third, cluster analysis showed that 37.6% of children belonged to cluster 2 with achievement and relation patterns and self-oriented differentiation. Forty-three percent were belonged to cluster 1 with isolated and daunted self-esteem as well as internal mind and other's oriented differentiation. In cluster 3, 19.4% were belonged and their levels of self-esteem and the differentiation of self were very low. Findings indicate that for those children belonged to cluster 1 and 3, programs to raise the self-esteem of children and parental education are needed.

■ keyword : | Community Child Center | Children | Self-Esteem | Differentiation of Self |

I. 서론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에 법제화를 거쳐 아동복지법 상에 명시된 아동복지시설이다. 2004년 당시 공부방 형태로 운영 중이었던 895개로 시작하여 법제화에 따른 정부 지원에 힘입어 2017년 12월말 기준 4,189개소로 늘어났으며 이용아동 수는 108,578명으로 급속한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1]. 사회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들 아동의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취약계층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2]에 나타난 경제상황별 이용아동 수를 보면 기초생활수급권 아동이 17.0%, 차상위층 아동이 20.6%, 기타승인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권 아동과 차상위 인정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 중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으로 전국 평균소득가구 70% 이하 가구 중 시군구청장 승인아동)이 48.0%, 일반아동은 14.4%이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전체 이용아동의 85.6%가 취약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아동이 경험하는 경제적 빈곤은 신체발달에서부터 자아발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빈곤층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력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4], 빈곤아동의 교육 및 여가 등 생활전반에의 제약과 부모의 권위주의적 태도, 애정 부재 등이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5].

자아존중감은 아동기에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발달이며[6], 사회 적응의 열쇠가 될 수 있으므로[7][8], 초등학교시기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동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9]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자아분화 수준은 가족 간 상호작용의 결과[10]이며 부적응 행동 및 증상은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11][12]. 즉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경우 부모와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13] 등 가족 간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이

용아동의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아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14-16], 이러한 관계가 인성발달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 및 역할, 동기, 성취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기에 건강한 자아존중감과 수준 높은 자아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인적자원 보호 및 육성이란 측면에서 중요하다.

취약계층 아동은 신체, 정서, 인지발달 등 모든 영역의 발달에 있어서 민감하고 결정적인 시기라는 점, 빈곤한 아동은 정서상의 문제가 높게 나타나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시급하게 필요함을 시사한다[17].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보살핌이 필요한 빈곤 아동에게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편[4]이므로 일반아동과는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 수준을 파악한다면 그들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 수준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과 같이 취약계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고, 프로그램 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은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자아존중감 유형과 자아분화 차원을 함께 고려할 경우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군집으로 분포될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자아존중감이란 자아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과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인지하는지를

반영하는 것[18]이다. 이는 아동 스스로 자신을 긍정적/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개인행동에 영향을 주어 타인에 대한 태도나 자기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사회 적응의 열쇠가 될 수 있다[7][8].

일반적으로 아동은 이전에 형성된 부모와의 긍정적 인 관계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교사 및 또래와의 대인관계를 성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정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와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13]. 이러한 부적절한 부모자녀 관계로 인해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고 소외감과 더불어 자신과 사회에 대해 부정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최근 가족해체, 이혼율 증가, 자녀와의 소통 부재 및 무관심 등으로 인해 아동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변화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 아동이 겪고 있는 부정적 변화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자아분화는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 및 정서적 성숙과 함께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정도를 의미한다[11]. 즉 자아분화란 자아강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내적 또는 외적 압력에 무조건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9].

가족 간 상호작용이 원활하고 가족의 지지를 충분히 받은 아동일수록 자아분화수준이 높으나[10], 가족 간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고 역기능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면 자아분화 수준이 낮고 외부세계를 지각하는데 객관성이 결여되어 충동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우울, 불안, 비행 등으로 연결된다[12]. 이는 아동의 자아분화 수준이 가족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부적응 행동 및 증상은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됨을 의미한다. Bowen[11]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신내적 과정에서 자아분화수준은 부적응[20][21] 및 정신건강[22][23]과 관련이 있으며, 부적응은 자아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한다[20][21]. 또래관계 분화가 잘 된 아동은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미분화된 아동은 독립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여 상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자신과 타인을 융해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이고 관계만족도가 높다[24]. 이는 아동의 자아분화 수준은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김미현과 김명식[25]은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 아동이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아동기 부적응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자아분화와 연결된다[14][15].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신에 대한 신념을 토대로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져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자신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부족하고 소외, 위축 등의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는 청소년기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정신건강[22], 학교생활 적응[15], 의사결정[26]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14],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이 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16] 등이 있다. 즉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과 같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취약계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 둘의 상관관계에서 더 나아가 자아존중감이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또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 수준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 아동은 대구경북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고학년(4학년~6학년)이며 151명을 대상으로 2016년 6월~7월에 설문지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조사 전에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5명씩,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자아분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분화수준은 태어나서 사춘기가 되어 안정될 때 잘 형성되므로[27]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초등학교 고학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조사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2.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28]의 SES(Self-Esteem Scale)와 Hartz와 Thick[29]의 Self-Esteem Questionnaire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적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20문항으로 구성되며 척도는 5점 리커트로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를 나타낸다. 역 채점 문항들은 역 채점한 후 각 하위요인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2 자아분화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Bowen[11]의 자아분화 척도를 토대로 아동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자아분화 척도는 정신내적분화와 또래관계분화를 반영하는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로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를 나타낸다. 역 채점 문항들은 역 채점한 후 각 하위요인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적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아존중감 유형과 자아분화 차원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적용하였다. 이 분석을 적용하면 변인 간 공통 요인과 각 변인의 영향력 및 구조적 특

성을 파악할 수 있다. 공통요인은 Cronbach's α 를 통해 신뢰도 검증을 거쳤다. 요인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을 적용하였고 요인회전은 배리맥스 방식을 이용하여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다중공선성 문제인데,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VIF)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였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 차원을 함께 고려한 아동분포는 군집분석을 적용하여 알아보았다. 군집분석은 자아존중감 유형과 자아분화 수준이 유사한 집단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아동을 집단화하는데 유클리드 거리자승법(squared euclidean distance)을, 동질적 특성을 가진 아동을 집단화하는 방법에는 워드법(Ward's method)을, 군집수를 결정하는 데는 퓨전계수(fusion coefficient)와 덴드로그램(dendrogram)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자료에 몇 개의 군집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료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51.5%)의 비율이 여학생(48.5%)보다 약간 더 높았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2]에 의하면 성별 이용 아동 수는 여학생보다 남학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분포는 모집단 분포와 유사하다. 학년은 5학년이 41.7%로 가장 많았다.

가족유형은 양부모가족 아동이 62.4%로 가장 많고, 모자가족 아동은 14.8%, 부자가족 아동은 1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손가족 및 소년소녀가족의 비율도 10.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 역시 모집단 분포와 유사하다. 즉 모집단의 경우 양부모가족 아동이 67.6%, 모자가족 아동이 16.0%, 부자가족 아동이 11.6%, 조손 및 소년소녀가족을 포함한 기타가 4.8%의 순이었다[2].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비율
성별	남학생	51.5
	여학생	48.5
학년	4학년	39.8
	5학년	41.7
	6학년	18.5
가족유형	양부모가족	62.4
	모자가족	14.8
	부자가족	11.9
	조손, 소년소녀가족	10.9
%(N)	전체	100.0 (151)

2.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 유형화

2.1 자아분화 차원

아동의 자아분화 차원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아이젠 값이 1 이상인 요인이 3개로 나타났다. 3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62.3%를 설명하고 항목 간 내적일관성을 반영하는 신뢰도(Cronbach α)는 0.701~0.723의 범위에 있다[표 2].

표 2. 자아분화 차원

항목	Loadings		
	1 정신내적 미분화	2 타인지향 분화	3 자아지향 분화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다.	.846	-.041	.097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편이다.	.787	.006	.286
자주 욕하고 무언가를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647	.282	.185
또래의 싸움에 잘 말려드는 편이다.	.515	.222	-.010
내 감정을 잘 조절한다.	-.513	.286	.086
내 계획이 또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잘 바꾼다.	.184	.785	.033
내 말이나 의견이 또래의 비판을 받으면 얼른 바꾼다.	.041	.777	.184
또래의 말보다 나 스스로 판단해서 의견을 바꾼다.	.175	-.745	.255
또래와 말할 때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301	-.022	.764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한다.	.266	.058	.685
또래의 의견보다 내 의견이 더 중요하다.	.008	.353	.681
또래의 말보다 내 생각에 따라 결정한다.	-.046	.383	.597
Eigen value	2.247	2.180	2.098
Cronbach α	0.705	0.723	0.701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요인 1을 구성하는 항목은 감정과 사고의 분리 능력을 반영하는 정신내적분화를 나타낸다. 화가 나면 참을 수 없고, 작은 일에도 화부터 낸다. 또한 욕하고 무언가를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또래 싸움에 잘 말려드는 편이다.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한다는 항목은 부적 적재량(-0.513)을 가지고 있다. 요인 1은 전반적으로 감정조절이 잘 되는 경향을 반영한다. 요인 2는 자아분화가 자신보다 또래를 지향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자신의 계획이 또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잘 바꿀 뿐 아니라, 자신의 말이나 의견이 또래의 비판을 받아도 바꾸는 경향이 있다. 또래의 말보다 스스로 판단해서 의견을 바꾼다는 항목은 부적 적재량(-0.745)을 가지고 있다. 요인 3에서 높은 적재량을 보인 항목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또래와 말할 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또래의 의견보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결정하고,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분석 결과, 자아분화는 3개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자아분화는 Bowen이 제시한 핵심 개념으로, 개인 내적 측면과 대인관계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 내적 측면은 정서적 성숙도를 의미하며, 대인관계 측면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30].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3요인과 Bowen이 제시한 개념을 비교해보면, 요인1은 Bowen의 개인 내적 측면에 해당하며, 요인2와 요인3은 Bowen의 대인관계 측면을 의미한다.

심혜숙과 정경연[27]은 자아분화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정서적 반응성(Emotional Reactivity), 자기입장(I-Postion),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 타인과의 융합(Fusion with Other)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반응성은 한 개인이 환경의 자극을 받으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경향과 반응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경향의 정도를 나타내며, 자기입장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가 하는 정도와 타인의 압력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신념을 견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정서적 단절은 친밀한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는 행동들과 자신의 감정들에 대해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과의 융합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정서적 관계에서 개입된 정도, 타인을 동일시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Bowen[30]과 심혜숙과 정경연[27]이 제시한 개념에 근거하여 요인1은 감정과 사고의 분리 능력이 미분화 되어 충동적 성향이 있는 정신내적미분화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대인관계 측면은 개인의 거짓 자아와 진짜 자아의 발달과 관련을 맺는다[30]. 거짓 자아는 타인의 정서적 압력에 쉽게 변화되는 자아로, 객관성 부족으로 자신의 말이나 계획이 또래의 비판을 받으면 바꾸는 의존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요인2가 해당하므로 타인지향분화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반면에 진짜 자아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지니며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아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중시하고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요인3이 해당하므로 자아지향분화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2.2 자아존중감 유형

자아존중감 유형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요인은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들 요인은 전체 분산의 67.4%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1에서 높은 적재량을 보인 항목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집에서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며, 또래들이 자신을 홍보는 것 같고, 가출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항목이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항목은 부적 적재량(-0.611)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도는 0.724이다.

요인 2는 결심한 데로 밀고 나갈 수 있고,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학급에서 지명 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님은 자신을 착하다고 생각한다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0.767이다.

요인 3에서 높은 적재량을 보인 항목은 누구든 자신을 좋아하고, 또래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며,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인지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0.782이다.

요인 4에 포함된 항목을 적재량 크기로 열거하면 사

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힘들고, 친구들이 자신보다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으며, 자신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순이다.

표 3. 자아존중감 유형

Items	Loadings			
	1 소외적	2 성취적	3 관계적	4 위축적
나 자신을 믿지 못한다.	.732	-.251	-.019	.200
집에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712	-.130	-.054	.172
사람들이 나를 홍보는 것 같다.	.708	.043	-.258	.194
가출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다.	.668	-.039	.107	-.136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낸다.	-.611	.200	.157	.078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114	.734	.224	-.158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다.	-.158	.666	.130	-.227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414	.629	-.059	.160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211	.601	.278	-.398
학급에서 지명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381	.563	.054	.347
선생님은 나를 착하다고 생각하신다.	-.116	.534	.464	.221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032	.032	.882	-.035
친구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141	.126	.828	.076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011	.346	.710	-.139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힘들다	-.069	-.186	-.023	.801
친구들이 나보다 인기가 더 많은 것 같다	.359	.064	.043	.727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때가 있다.	.216	.070	.081	.629
Eigen value	2.931	2.640	2.441	1.625
Cronbach α	0.724	0.767	0.782	0.549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자아존중감은 긍정적/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척도로 사용한 경우[31], 진정한 자아존중감과 방어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여 사용한 경우[32], 일반적인 자아존중감, 가족, 학교, 사회 자아존중감 4개 요소로 구분하여 사용한 경우[33], 사회적, 가정적, 학업적 자아존중감 3개 요소로 구분하여 사용한 경우[34] 등 다양하다.

김영옥과 김성희[33], 임구원[34]은 초등학교의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연구로, 자아존중감의 분류에서 가족과 학교생활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서 개인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초점을 둔 반면, 긍정적/부정적 자아존중감, 진정한/방어적 자아존중감은 개인에게 초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자아존중감은 변하지 않는 긍정적 자기감을 뜻하는 반면, 방어적 자아존중감은 내면에 부정적인 자기 가치감을 갖고 있으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높아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질문 내용은 환경보다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진정한(긍정적)/방어적(부정적) 자아존중감에 근거하여 이름을 명명하고자 한다. 요인1과 요인4는 방어적(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며, 요인2와 요인3은 진정한(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한다. 이를 보다 더 구체화하고 질문 내용을 참고로 하여 각 요인의 이름을 소외적, 성취적, 관계적, 위축적 자아존중감이라고 명명하였다.

3. 자아존중감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가 모두 0.1 이상이고 VIF(분산팽창계수)는 5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자아존중감 유형 중 소외성과 위축성은 정신내적미분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유형은 정신내적미분화와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소외적 및 위축적 자존감이 강할수록 정신내적미분화가 심화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베타값(β)을 기준으로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면 위축성($\beta=0.219, p<0.05$)에 비해 소외성($\beta=0.417, p<0.001$)이 정신내적미분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인지향분화의 경우, 소외적 유형과 성취적 유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유형은 타인지향분화와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소외적 자존감 뿐 아니라 성취적 자존감이 높을수록 타인지향분화가 높아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두 유형 중 타인지향분화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성취적 자존감($\beta=0.225, p<0.05$)에 비해 소외적 자존감($\beta=0.346, p<0.001$)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지향분화의 경우 소외적 유형이 유의하고(β

$=-0.356, p<0.001$) 성취적, 관계적, 위축적 유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적 유형은 자아지향분화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소외적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아지향분화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표 4. 자아존중감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모형		B	β	t	F	R ²
정신 내적 미분화	(상수)	0.745		1.35	7.22***	0.24
	소외적	0.449	0.417	4.09***		
	성취적	0.134	0.120	1.01		
	관계적	-0.054	-0.049	-0.45		
	위축적	0.218	0.219	2.34*		
타인 지향 분화	(상수)	0.720		1.37	4.62***	0.17
	소외적	0.341	0.346	3.24***		
	성취적	0.230	0.225	1.98*		
	관계적	0.062	0.061	0.52		
	위축적	0.150	0.165	1.68		
자아 지향 분화	(상수)	1.255		2.47**	3.32***	0.13
	소외적	0.319	0.356	3.13***		
	성취적	0.092	0.096	0.71		
	관계적	0.093	0.097	0.77		
	위축적	0.063	0.071	0.69		

* $p<0.05$ *** $p<0.001$

4. 자아존중감 및 자아분화를 고려한 군집 분포

자아존중감 유형과 자아분화 차원을 함께 고려할 경우 아동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적용하였다. 군집분석에서 덴드로그램과 퓨전계수는 군집수가 3개가 될 때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완만한 변화를 보여서 최적 군집수가 3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5].

군집 1에는 전체 아동의 43.0%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두 개의 군집보다 가장 많은 아동이 분포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평균이 높은 것은 소외적, 위축적 유형이며, 자아분화 차원은 정신내적미분화와 타인지향분화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외적 성향을 가진 아동은 위축적 성향도 더불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소외적, 위축적 자존감을 가진 아동은 자아분화가 정신내적으로 미분화되고, 관계분화가 타인지향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군집 2에는 37.6%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두 군집보다 평균이 높은 항목이 자아존중감은 성취적, 관계적 유형이며 자아분화 차원은 자아지향분화가 상대

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성취적 성향을 가진 아동은 관계적 성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자아분화 차원과 연계하면 성취적, 관계적 자존감을 가진 아동은 자아지향분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군집 3에는 아동의 19.4%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군집은 다른 두 군집에 비해 소외적, 위축적 성향은 약하지만 그렇다고 성취적, 관계적 성향이 강한 것도 아니다. 자아분화 차원의 경우 정신내적미분화 정도도 낮고, 관계분화에서 자아지향과 타인지향 수준도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군집에 속한 아동은 자존감이 낮고 그로 인해 자아분화 수준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 자아존중감 및 자아분화 수준별 아동 분포: 군집분석

변 수	유 형	Cluster		
		1	2	3
자아 존중감	소외적	3.54	1.33	1.69
	성취적	2.92	3.91	2.81
	관계적	2.81	3.71	2.50
	위축적	3.27	2.81	2.17
자아분화	정신내적미분화	3.16	2.14	1.67
	타인지향분화	3.11	2.73	1.91
	자아지향분화	2.65	3.01	1.79
%		43.0	37.6	19.4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 수준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와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은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여러 선행연구[14-16] 결과와 직접적 비교는 할 수 없으나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정신내적미분화는 소외적 및 위축적 자존감과 정적 관계가 있고, 자아지향분화는 소외적 자존감과 관계가 있다. 타인지향분화는 소외적 및 성취적 자존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관계적 자존감은 자아분화

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자아분화는 소외적 자존감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관계적 자존감과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회문화적 입장에서 소외는 '자기를 낮은 사람처럼 경험하는 경험양식', 또는 '자아가 두 부분으로 분열된 후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지배하고 통합되지 못한 상태' 등으로 정의하며, 고립과 유사한 개념으로 우울감, 불안, 자아개념의 저하 등을 수반하는 주관적 경험인 외로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35] 자아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자존감보다도 소외적 자존감을 높여야 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학교에서 교사 및 또래와의 대인관계를 성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Bowen[11]도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대인관계를 정확하게 지각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 관계성과 자아분화는 밀접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은 아동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를 바탕으로 대인관계를 성공적으로 경험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정서적 문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 및 긍정적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여[13] 관계적 자존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분석결과에서 관계성과 자아분화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 등 가족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은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로 남겨두기로 한다.

둘째,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을 고려한 아동 분포를 분석한 결과 3개의 군집을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군집 1에 소속된 43.0%의 아동은 소외적, 위축적 성향이 있으며, 정신내적미분화와 타인지향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군집 2에는 37.6%의 아동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성취적, 관계적 자존감이 높고, 더불어 자아지향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3에 소

속된 19.4%의 아동은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도 낮고 자아분화 수준도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62.4%가 자아존중감뿐만 아니라 자아분화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빈곤층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한 김현정과 최은영[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일반아동보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 본 연구결과 나타난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간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들에게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유형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 상담 및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유형별 특성과 상호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외적 유형이 위축적 유형과 상호 변화관계가 있으므로 두 유형 중 어느 한 유형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 나머지 한 유형도 같은 맥락에서 변화 할 것이다. 관계적 유형 역시 성취적 유형과 상호 변화관계가 있으므로 관계적 자존감이 높아지면 성취적 자존감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자아분화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특히 감정과 사고의 분리가 안 되는 정신내적미분화는 이성적 사고가 아닌 감정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하며,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충동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신내적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외적, 위축적 자존감 향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담 및 임상 현장에서 정신내적미분화로 인해 행동문제가 있는 아동을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소외적, 위축적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체 아동의 37.6%(군집 2)는 성취적, 관계적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아지향분화 수준도 높지만, 43.0%는 소외적, 위축적 성향과 더불어 정신내적미분화와 타인지향분화 수준이 높으므로 이들 아동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은 19.4%의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군집 3과 같은 특성을 지닌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은 소외적, 위축적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이러한 방안은 아동의 자아분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중재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 특성에 맞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은 아동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각과 느낌, 태도를 생각하게 도움으로써 아동의 긍정적인 성격과 태도를 확신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부터 형성/발달되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다수가 가족 해체나 부모역할 부재 및 부족으로 인한 상실감을 경험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모교육 및 가족 연계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 발달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보건복지부, 2017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2018.
- [2]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2016.
- [3] 정영숙, 아동복지론, 경북: 대구대학교 출판부, 2015.
- [4] 김현정, 최은영,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통합연구방법의 적용," 보건사회연구, 제34권, 제1호, pp.239-267, 2014.
- [5] 박시혜자, 송승민, 이유헌, "무상급식 수혜대상인 빈곤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비빈곤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2권, 제3호, pp.407-416, 2011.

- [6] 정영숙, 홍명선,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갈등차원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재활심리연구*, 제20권, 제2호, pp.273-288, 2013.
- [7] 권혜진, 성미영,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52권, 제4호, pp.395-403, 2014.
- [8] 손병덕, 허계형, “방입·학대 경험아동의 성취가치와 자기관리 형성이 학업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9호, pp.305-323, 2016.
- [9] 정선아, 하양숙, “한부모 가정 초등학생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227-235, 2013.
- [10] D. G. Knauth, E. A. Skowron, and M. Escobar, “Effect of differentiation of self on adolescent risk behavior: Test of the theoretical model,” *Nursing Research*, Vol.55, pp.336-345, 2006.
- [11] M. Bowen,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1982.
- [12] 이혜순,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 및 가족기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제16권, 제4호, pp.297-303, 2010.
- [13] 김희숙, 박경란, 김판희,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의사소통 능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제20권, 제4호, pp.414-422, 2011.
- [14] 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청소년의 부모 애착, 자아분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7권, 제1호, pp.209-224, 2009.
- [15] 이혜순, “청소년의 자아분화수준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333-341, 2013.
- [16] 전미경, 김민숙, “일 간호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자아분화, 자아존중감 및 생활스트레스,”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pp.293-302, 2013.
- [17] 박영준, 이정숙,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차별경험,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과 인과관계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20권, 제1호, pp.31-52, 2016.
- [18] M. Rog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9] M. P. Nichols, *The essentials of family therapy(6th Eds.)*, New Jersey: Pearson, 2013.
- [20] 이은진, “행동수정요법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금연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제14권, 제1호, pp.64-72, 2005.
- [21] 이해경, 이은희,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갈등대처행동과 부부갈등의 매개역할,”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3호, pp.43-68, 2011.
- [22] 이혜순, “청소년의 자아분화수준,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 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20권, 제2호, pp.199-207, 2011.
- [23] 배미예, 이은희,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및 우울불안 간의 관계: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 pp.85-112, 2009.
- [24] E. A. Skowron, “The role of differentiation of self in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7, pp.229-237, 2000.
- [25] 김미현, 김명식, “보건계열 여학생의 성인애착이 우울,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제29권, 제1호, pp.23-37, 2014.
- [26] 정성경, 남상인,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자아존중감 및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6권, 제4호, pp.1119-1127, 2005.
- [27] 심혜숙, 정경연, “아동의 자아분화가 불안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8권, 제1호, pp.285-297, 2007.
- [28] M. Rosenberg,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 1979.
- [29] L. Hartz and L. Thick, “Art therapy strategies to raise self-esteem in female Juvenile offenders: A comparison of art psychotherapy and art as therapy approaches,” *Art Therapy: Journal of*

the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Vol.22, No.2, pp.70-80, 2005.

- [30] 이소미, 고영진, “자아분화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효과-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8권, 제3호, pp.643-658, 2009.
- [31] 장성화, 김순자, 최성열, 이주연,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정신건강이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제22권, 제4호, pp.243-256, 2013.
- [32] 김민정, 이기학, “자존감 불안정성, 자존감 수준, 방어성에 따른 자존감 유형 탐색 연구,” 상담학연구, 제10권, 제3호, pp.1413-1425, 2009.
- [33] 김영옥, 김성희, “가정폭력 노출 아동용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초등교육연구, 제26권, 제3호, pp.43-68, 2013.
- [34] 임구원, “저소득층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 아동보호연구, 제2권, 제2호, pp.1-26, 2017.
- [35] 주소희, 이경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서적 고립 및 소외와의 관련성 연구,”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제7권, 제1호, pp.45-64, 2014.

저 자 소 개

이 미 영(Mi-Young Lee)

정회원



- 2013년 3월 : Rikkyo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박사)
- 현재 :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정신건강, 지역복지, 가족, 교육